



2013년 1월 3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CHART OF THE WEEK: 두 얼굴의 스페인

• 경제분석

12월 산업활동: 일시적 요인을 제외시 느린 반등

• 이머징마켓 동향

부동산경기 회복 기대, 중국증시 사흘째 강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엠씨넥스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대덕GDS 외 5종목

• 기업분석

삼성SDI, LG화학, 에스원, 스카이라이프, 제일기획, POSCO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23(수)	01/24(목)	01/25(금)	01/28(월)	01/29(화)	01/30(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80.41	1,964.48	1,946.69	1,939.71	1,955.96	1,964.43	
	등락폭	-16.11	-15.93	-17.79	-6.98	16.25	8.47	
	등락종목	상승(상한)	300(5)	290(6)	309(5)	390(3)	442(4)	426(9)
		하락(하한)	514(3)	521(1)	499(2)	442(3)	351(0)	370(1)
	ADR	103.86	100.85	97.38	97.36	96.47	93.95	
	이격도	10 일	99.53	98.94	98.29	98.27	99.24	99.73
		20 일	99.24	98.49	97.68	97.45	98.37	98.96
	투자심리	40	30	30	20	30	40	
	거래량 (백만 주)	486	551	396	344	459	516	
	거래대금 (십억 원)	4,125	4,449	4,956	4,529	4,538	4,207	
코스닥	코스닥지수	513.26	508.63	506.83	504.20	505.35	502.80	
	등락폭	-3.33	-4.63	-1.80	-2.63	1.15	-2.55	
	등락종목	상승(상한)	359(14)	290(8)	338(6)	412(11)	472(6)	348(6)
		하락(하한)	569(1)	634(0)	602(3)	523(5)	448(3)	571(0)
	ADR	112.85	106.45	102.87	99.37	96.45	90.56	
	이격도	10 일	100.20	99.41	99.23	98.89	99.17	98.76
		20 일	101.51	100.35	99.76	99.12	99.26	98.75
	투자심리	50	4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548	540	544	463	550	462	
	거래대금 (십억 원)	2,023	1,886	1,830	1,507	1,639	1,759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10.0	1,206.1	1,081.1	201.3	121.1	257.4	57.4	18.6	392.6	35.3
	매도	1,975.5	1,300.6	915.6	202.6	106.0	268.0	33.9	16.1	243.7	40.9
	순매수	-65.5	-94.5	165.5	-1.3	15.1	-10.6	23.4	2.5	148.8	-5.5
	01 누계	1,126.1	-1,811.8	832.2	91.5	347.2	-309.0	-57.2	-4.9	761.6	-146.4
	13년 누계	1,126.1	-1,811.8	832.2	91.5	347.2	-309.0	-57.2	-4.9	761.6	-146.4
	코스닥	매수	1,627.2	69.7	74.3	9.9	9.6	17.5	10.0	2.3	22.9
매도		1,598.5	80.4	85.6	14.5	9.2	22.0	5.8	6.8	23.4	18.8
순매수		28.7	-10.7	-11.3	-4.6	0.4	-4.5	4.2	-4.6	-0.5	-6.7
01 월 누계		-33.6	7.4	78.2	12.0	-12.5	93.0	5.2	-25.0	17.2	-52.0
13년 누계		-33.6	7.4	78.2	12.0	-12.5	93.0	5.2	-25.0	17.2	-52.0

CHART OF THE WEEK: 두 얼굴의 스페인

1월 월간 밴드	1,950-2,08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5배
12MF PBR	1.04배
Yield Gap	7.8%p

- ▶ 국채 금리 하락, CDS 하락, 증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
- ▶ 우려스러운 펀더멘털 지표는 개선 기대감 요원한 상황
- ▶ 유럽의 Risk-onセンチ멘트 이어질 수 있으나, 유로화 반등 압력과 불안한 스페인 지표 부담
- ▶ 스페인 개선 부재시 우려 재발 가능: 스페인 자체보다 전염가능성 우려했던 지난 2년 상기

■ 두 얼굴의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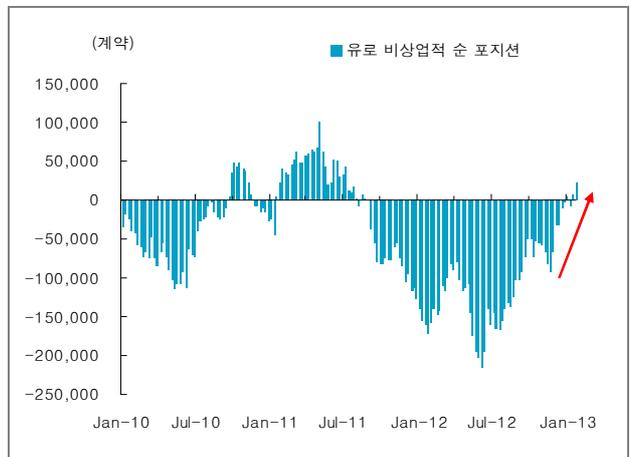
30일 유로화는 1.35를 돌파하며 13개월래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 금리도 상당한 수준까지 내려왔고, 증시는 반등했으며, CDS 프리미엄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두고 시장의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스페인은 구제금융 없이도 일단 용케 버텨나가고 있는 듯 하다. 23일 있었던 국채 입찰에서도 성공적으로 자금조달을 마치며 마치 유로존의 기저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1] 독일-스페인 국채 스프레드 및 CDS 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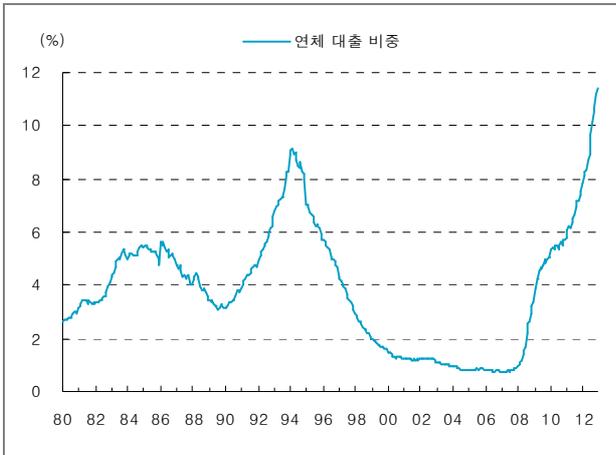
[그림 2] 유로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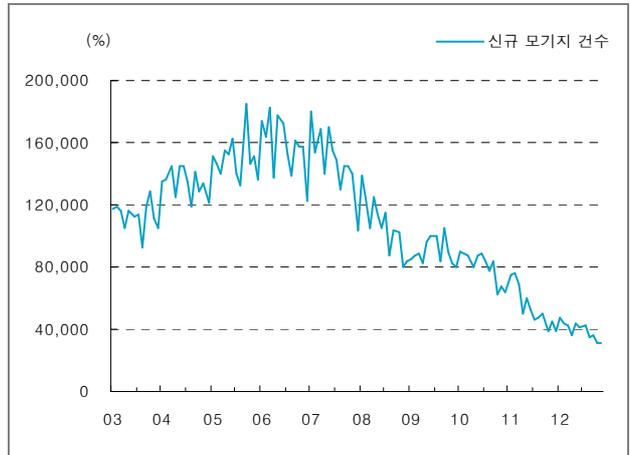
다만 스페인과 관련된 일부 긍정적 분위기의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라가야 할 것들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야 할 것들은 여전히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온 지표들이 그야말로 ‘바닥’에 근접했다는 조롱섞인 평가 외에는, 스페인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그림 3] 스페인 은행 연체 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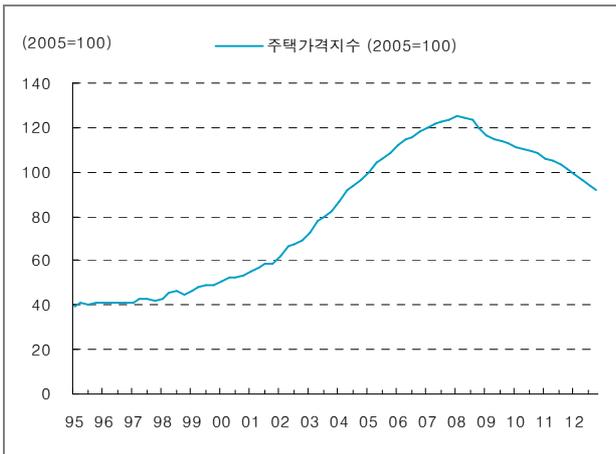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스페인 신규 모기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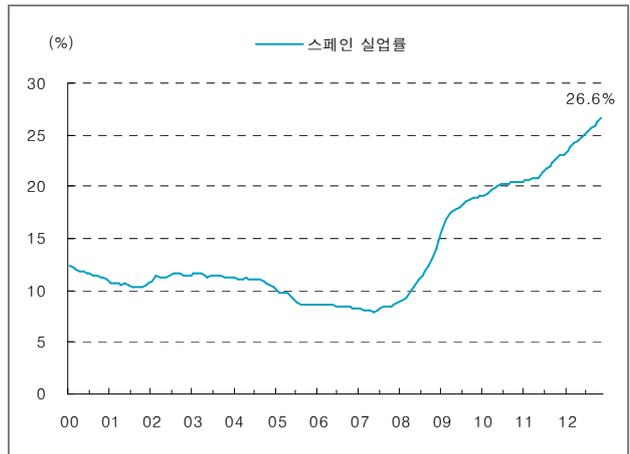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스페인 주택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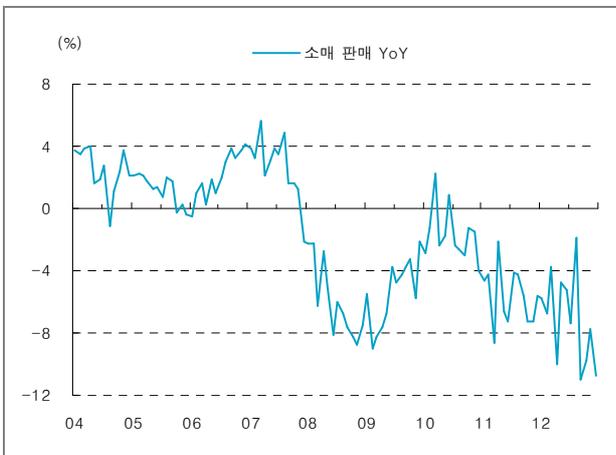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스페인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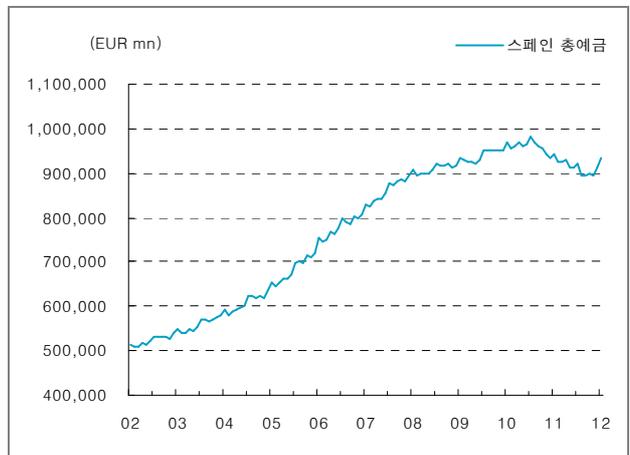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스페인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스페인 은행 총 예금: 불행 중 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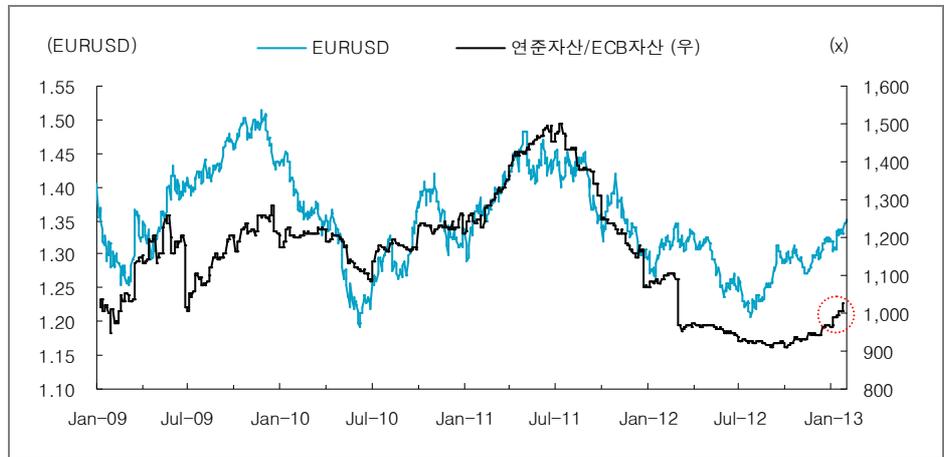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특히 실업률, 소매판매, 연체대출비중, 주택가격 등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해석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스페인의 험난한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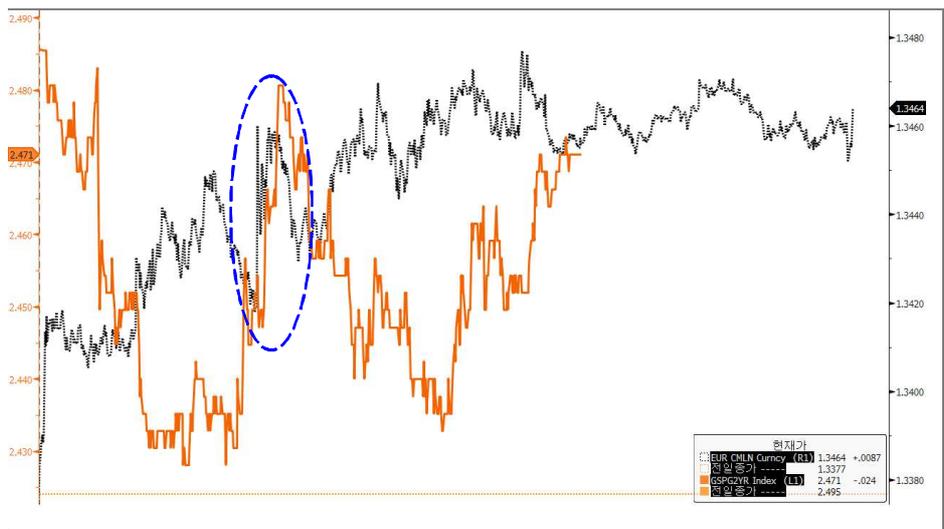
LTRO 조기 상환은 유럽내 은행권의 자금 부담 완화를 의미한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반대급부로서 ECB의 자산규모가 줄어들 경우 유로화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LTRO 대출 시 담보로 사용했던 국채가 매물로 나오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재개될 수도 있다. 25일 LTRO 상환 금액이 시장 예상했던 1천억 유로보다 많은 약 1,370억 유로로 알려지면서 장중 유로화 및 스페인 국채금리가 올랐으나, 다행이 별다른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림 9] 연준과 ECB 자산 비율 및 유로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LTRO 조기상환 발표 직후 유로화 및 스페인 국채 2년물 장중 움직임(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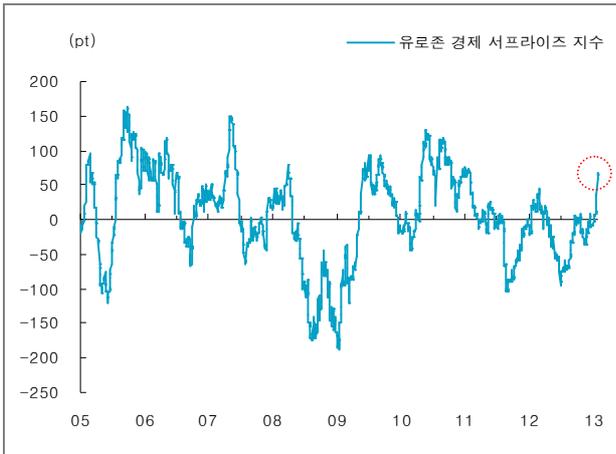


주: 검은색=유로, 주황색=스페인 국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기본적으로 최근 유럽 증시에서의 risk-on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앞으로 매주 LTRO 조기상환이 이어지더라도, 시장에서는 밝은 면에 무게를 둘 것이고 스페인 국채 금리 급반등의 개연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스페인의 기초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부가 곱아 터져버리고, risk-on 트레이드에서 risk-off 트레이드로의 전환에 직면한다면, 첫 타겟으로 스페인이 정 중앙에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 지표들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향후 유로존 전반의 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추가적인 완화 정책 없이 ECB 자산만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유로화 상승에 따른 고통과 자금 경색의 이중고를 다시 겪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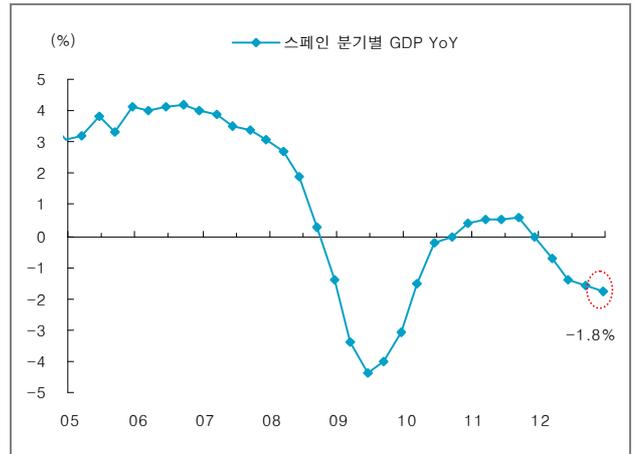
2013년 기대하는 유로존의 기저효과를 당장 지금의 국채 금리 안정이나 증시의 반등만으로 해석하는 낙관적 편향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유로존의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는 최근 급등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 스페인의 경제지표는 여전히 암담하기만하다. 30일 4분기 스페인 경제성장률도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1.8%로 발표되면서 실물경제 부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에 눈길이 간다.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스페인에 대한 우려는 스페인으로 끝난 던 것이 아니라 전염 가능성에 더 두려움이 컸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 유로존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12년 4분기 스페인 성장률 -1.8% 기록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12월 산업활동: 일시적 요인을 제외시 느린 반등

- ▶ 12월 수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 생산 호조, 출하 늘고 재고는 감소
- ▶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시적 호조 요인 제외하면 회복세는 상당히 느린 편
- ▶ 1분기 경기는 투자 감소세 완화, 수출 부진 만회에서 오는 제한적인 반등세가 예상됨

■ 12월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호조

1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본 12월 국내 경기는 당시 대내외 여건이나 시장 예상보다 좋았다. 12월 광공업생산이 전월 대비 1% 증가했고 제조업생산은 1.4% 늘어 더욱 개선됐다. 시장 컨센서스가 2% 감소했을 것으로 집계됐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당초 예상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미국 재정절벽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경제활동도 위축됐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산뿐 아니라 출하가 전월보다 2.4% 늘어난 반면 재고는 0.9% 감소해 제조업체들의 재고 부담도 완화됐다.

〈표1〉 산업활동동향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	Jun	Jul	Aug	Sep	Oct	Nov	Dec
전산업생산	0.4	1.5	-0.2	1.3	-0.5	2.0	0.3
광공업	1.6	0.2	0.3	0.7	-0.6	3.2	0.8
서비스업	1.4	1.5	0.8	2.6	0.8	2.0	1.0
건설업	-16.2	0.2	-7.9	-5.2	-11.7	-2.0	-11.3
공공행정	1.6	10.9	-4.4	-0.5	1.1	-2.4	4.6
소매판매	0.6	2.7	-0.4	2.3	1.9	4.1	1.5
설비투자	-4.5	1.3	-14.4	-8.1	-0.6	-9.3	-6.3
건설수주	2.6	23.8	-29.9	-14.8	-22.7	-17.4	-42.5

〈표2〉 산업활동동향 전월 대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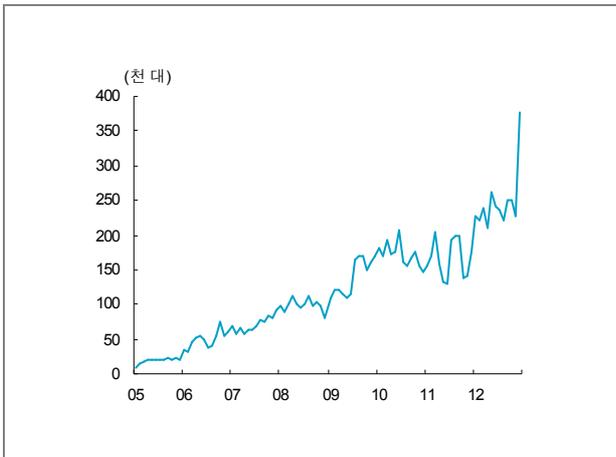
(%)	Jun	Jul	Aug	Sep	Oct	Nov	Dec
전산업생산	-0.2	0.2	-1.7	1.0	-0.3	1.3	0.8
광공업	-0.5	-1.8	-0.9	0.7	0.7	2.6	1.0
서비스업	-0.2	0.7	-0.1	0.8	-1.1	0.8	0.1
건설업	-2.8	5.9	-7.2	5.5	-1.8	2.2	5.8
공공행정	3.2	3.3	-13.4	0.3	2.8	-2.2	2.6
소매판매	-0.5	3.5	-3.1	1.3	-0.9	2.5	-1.1
설비투자	-4.9	1.5	-14.1	6.6	-2.8	-0.7	9.9
건설수주	29.5	-14.1	-16.4	0.1	-4.5	-2.3	-22.4
경기선행지수	1.1	0.6	0.2	-0.2	0.1	0.8	0.9
경기동행지수	0.4	0.6	-0.1	0.4	-0.1	0.6	0.5

■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시적 호조 요인 제외하면 회복세는 상당히 느린 편

12월 제조업 지표들이 예상 외로 큰 폭 개선됐지만 이러한 속도는 유지되기 어렵다. 12월 호조는 영상음향통신 및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서의 일회성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시 전반적인 경기 회복 속도는 아직 느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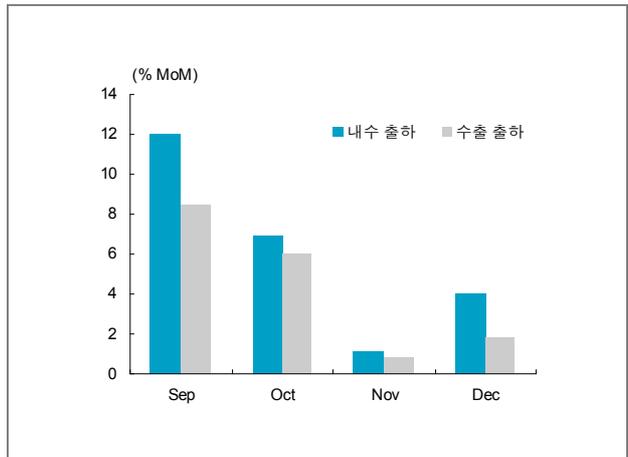
제조업 생산 증가율 1.4% 가운데 영상음향통신업과 자동차업 생산이 각각 0.8%p, 0.2%p 기여했다. 영상음향통신업 생산과 출하는 한 달 만에 20% 이상 늘었는데, 이는 작년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TV 교체 수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LCD TV 내수량이 2012년 11월까지 월평균 23만대 수준에서 12월에는 38만대로 뛰었다. 또한, 자동차업종에서의 호조는 한시적으로 인하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이 12월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구매 수요가 앞당겨진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2000cc 이하의 소형차 경우 특소세가 3.5%에서 5%로, 2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6.5%에서 8%로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오히려 연초 자동차 구매 수요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1] LCD TV 내수량



자료: 통계청

[그림2] 자동차 내수출하 및 수출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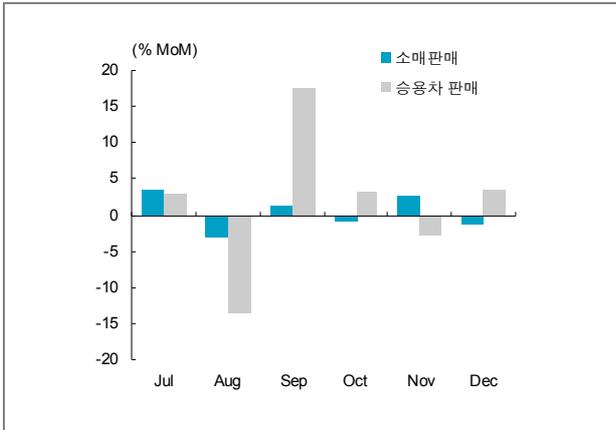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1분기 경기는 부진 심했던 부문 중심으로 반등하는 데서 긍정적 영향 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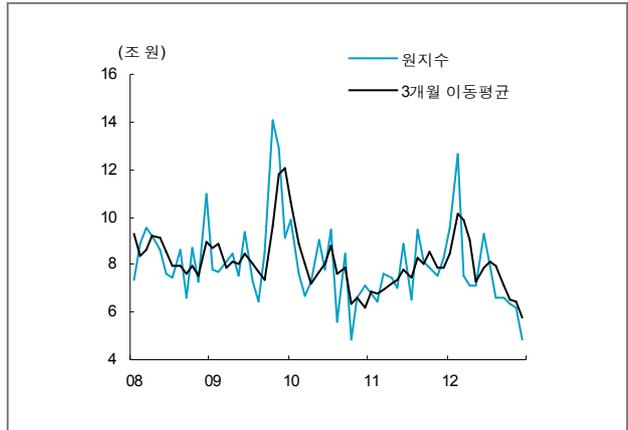
지난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에 그쳤다. 과거 평균 전기비 성장률이 1.1%였으며, 직전 2분기 성장률이 저조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반등의 폭은 상당히 미약했다. 통상 2분기 연속 0.3% 성장률을 하회한 이후에는 반등세가 가파른 경향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대내외 여건상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복 속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어느 한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작년 하반기 부진이 심했던 부문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나는 데 따른 되돌림 차원으로 판단된다. 4분기 GDP에서 유일하게 호조를 보였던 민간소비 부문이 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지속하기는 힘에 부칠 것이다. 12월에도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다면 소비지출은 축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건설투자는 소폭 반등했지만, 건설수주가 한 달 간 22.4% 줄었고 4분기 전체적으로도 18.2% 감소한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 투자가 조기 집행되더라도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다.

[그림3]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통계청

[그림4] 국내건설수주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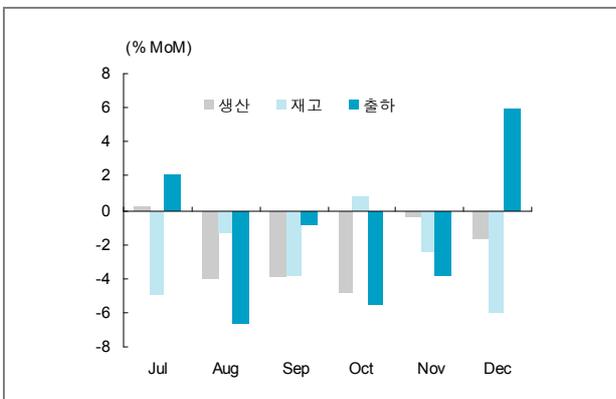
■ 투자 감소세 완화, 수출 부진 만회에서 오는 제한적인 반등세 예상

1분기 성장률에는 설비투자과 수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회복의 초기 단계인데다 과거 ‘소비국-생산국’의 무역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 확대가 당장 한국의 수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출 반등세는 4분기 부진을 만회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 기계장비 재고 부담 낮아, 설비투자 반등의 조짐 보이기 시작

한편, 지난 하반기 내내 가장 부진했던 설비투자 부문은 연말 들어 반등세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더 이상 경기 발목을 잡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12월 중 약 10% 상승한 설비투자지수를 보면 운송장비 투자가 28% 늘어난 영향이 커 한계는 있지만, 기계류 투자가 6% 증가했고 기계 수주도 2개월 연속 10%씩 증가하고 있어 설비투자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설비투자 관련된 기계장비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 조절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12월 지표에서 내수용과 수출용 기계장비 출하가 모두 늘어났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것을 반영해 추후 관련 생산 반등을 긍정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5] 기계장비 생산, 출하 및 재고 증가율



자료: 통계청

[그림6] 기업경기조사-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자료: 통계청

종합해보면, 12월 제조업 지표 개선은 국내 경기의 하강 리스크가 상당히 줄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영상음향통신 및 자동차업종 등 일부 산업에서의 일회성 요인을 배제한다면 전반적인 회복 속도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4분기 GDP 결과가 나오면서 부진이 심화돼 경기 발목을 잡았던 설비투자 부문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부동산경기 회복 기대, 중국증시 사흘째 강세

- ▶ 중국, 올해 도시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3.5% 전망 -중증망
- ▶ 중국, 중앙정부 연간 주택가격 10% 이내 용인, 차별적 부동산규제 예상 - 21세기경제보도
- ▶ 중국 증감회, 대만 금융기관에 1000억 위안 규모 RQFII 한도 부여 검토 계획

상해증시 사흘째 상승
SOC, 부동산, 증권주
강세 주도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1% 오르며 사흘째 강세를 지속했다. 보합세로 개장 후 장중 등락을 보였으나 장 후반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거래금액은 1,248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며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피치가 올해 중국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면서 SOC 관련주와 부동산주가 지수 강세를 주도했다. 또한 중국인의 대만 증시에 대한 투자한도 2배 확대, 대만 금융기관에 대한 RQFII 추진 등의 결정에 힘입어 증권주도 큰 폭 상승했다. 업종별 상승률은 SOC(+2.8%), 보험(+2.1%), 제지(+1.5%), 섬유/의류(+1.4%), 철강(+1.3%), 부동산(+1.2%), 석유/천연가스(+1.2%), 증권(+1.0%), 여행(+1.0%), IT소프트웨어(+1.1%), 통신장비(+0.9%), 석탄(+0.8%), 음식료(+0.7%), 자동차(+0.4%), 기계(+0.3%) 등을 기록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건설, 비철금속, 은행, 헬스케어, 시멘트, 화학업종은 차익실현으로 하락했다.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했다. 상승 출발 후 장중 강세를 유지했다. 올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확대와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경기민감주가 상승세를 나타냈고 양안간 주식시장 개방 호재로 증권주도 크게 올랐다. 미국 FOMC를 앞두고 양적완화 유지 전망이 우세했고 UBS가 상반기 중 홍콩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해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업종별로는 금융, 농업, 석탄, 여행, 건설, 석유/천연가스, 섬유/의류, 유틸리티, 철강/비철금속, 유통, 운송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자, 헬스케어, 자동차, 광업주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내렸다.

H지수 하루 만에 반등
경기민감주 및 금융주
큰 폭 상승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30(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82.48	1.00	2.65	5.00	5.00
홍콩 H	12,172.24	0.78	0.05	6.44	6.44
인도 SENSEX	20,014.69	0.12	-0.06	3.03	3.03
러시아 RTS	1,630.81	0.43	1.59	6.80	6.80
브라질 보베스파	60,406.33	0.63	-2.41	-0.90	-0.90
베트남 VN	487.60	0.74	9.98	17.85	17.85
MSCI 이머징마켓	1,069.88	0.74	-0.62	1.39	1.39

주: 30일 오후 6시 1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세와 복핵 리스크라는 초약재가 맞물리며 혼조세

- 미국 증시는 개장전 발표된 주택지표 개선과 화이자 등 대기업들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이틀째 혼조세를 이어감. 1,930P선을 회복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 및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장중 하락반전 하기도 했으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확대되며 하락반전하며 마감. 엔화 약세로 투자심리가 호전되며 일본증시는 2% 이상 강세를 보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위메이드 자회사인 조이맥스의 링크투모로우에서 개발한 모바일게임 '윈드러너'가 출시 첫날 국내 애플 앱스토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양사가 동반 급등한 가운데 의료기기분야를 육성중인 삼성전자로의 피인수 기대감에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가 상승가를 기록, 모회사 솔본도 급등세를 보임. 국내 최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터치스크린패널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아이엠이 강세를 보였으며, 동양시멘트가 최근 10% 가격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타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며 시멘트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에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혜주로 부각된 장애인 관련종목들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했으며,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며 시초가를 형성한 아이센스는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1% 이상 급락

종목/테마	내 용
조이맥스(101730) ▶25,500(+13.01%)	‘윈드러너’가 출시 첫날 애플 앱스토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초강세 - 동사가 개발한 러닝 어드벤처 모바일게임 ‘윈드러너’가 출시 첫날 국내 애플 앱스토어 전체 무료 인기 앱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초강세 - ‘윈드러너’는 지난 29일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출시 하루 만에 전체 무료 인기 앱 1위, 전체 매출 순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10,800(상한가)	삼성전자로의 피인수 기대감에 초강세 - 삼성전자가 의료기기분야 육성을 위해 미국의 컴퓨터단층촬영(CT) 전문 업체 '뉴로로지카'를 인수한 데 이어 동사의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며 초강세 - 동사는 의료영상정보 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뷰웍스(100120)는 엑스레이(X-ray) 핵심부품 등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음
아이엠(103190) ▶6,190(+10.34%)	국내 최초 플렉서블 TSP 상용화 소식에 초강세 - 국내에서 최초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터치스크린패널(TSP) 구현이 가능한 획기적 소재를 상용화해 양산한다는 소식에 초강세 - 올 하반기부터 FTO 필름을 양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장비 발주를 마쳤으며, 생산라인 구축에 돌입한 상태
시멘트주	시멘트 가격 인상 기대감에 강세 - 최근 동양시멘트가 총 10%의 가격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조만간 타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며 강세 - 동양시멘트(038500, +9.91%), 쌍용양회(003410, +5.23%), 현대시멘트(006390, +4.29%), 성신양회(004980, +4.00%)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엠씨넥스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엠씨넥스 (095720)	- 작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삼성으로 공급하기 시작, 향후 물량 확대 가능성 상존. 또한 ZTE, 화웨이 등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ZTE의 신규 최신행 스마트폰 '그랜드S'에 13M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향 매출 신장 기대 -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 향후 미국 내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장착 법안 추진 시 수혜 예상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2. 12F	169.5	6.3	3.9	657	12.2
	2013. 12F	219.4	11.6	8.8	1,486	5.4

- 편입 제외 종목: 엠케이전자(시세 탄력 부진으로 제외 -10.1%)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맥 (097780)	14,750 (-10.6)	16,500 (1/21)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LG (003550)	64,300 (-4.0)	67,000 (1/3)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음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문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 기대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이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MDS테크 (086960)	14,850 (+10.0)	13,500 (1/2)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자회사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3,950 (+2.6)	13,600 (1/2)	- 크롤러크레인 트랙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투랙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계로 원가경쟁력
로엔 (016170)	13,600 (-1.1)	13,750 (1/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엠씨넥스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대덕GDS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대덕GDS (004130)	17,250 (-5.7)	18,300 (1/21)	578	58	49	2,156	8.0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농심 (004370)	279,500 (+2.8)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2.6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LS (006260)	89,700 (-5.6)	95,000 (1/2)	13,604	596	356	12,829	7.0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꼬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성전자 (005930)	1,440,000 (-8.6)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7.8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44,500 (+7.5)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18.5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LG화학 (051910)	302,000 (-11.2)	340,000 (1/2)	24,430	2,296	1,740	23,666	12.8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삼성SDI(006400)

매수(유지)
목표가: 190,000원(유지)
종가(1/29): 141,500원

지금은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

■ What's new : 4분기 부진한 영업이익은 일회성비용이 대부분을 차지

삼성SDI의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5.9% 하락한 1.41조원,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한 7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의 예상치와 시장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PC 수요의 부진으로 원통형 2차전지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도 있지만, 1) 부실재고 폐기손실, 2) 연말 성과급 지급, 3) 과징금관련 충당금 설정 등 일회성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동사의 2차전지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4분기 부진한 영업이익은 펀더멘털 이슈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 Positives : 삼성전자 태블릿PC 성장의 최대 수혜주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요인들은 1) 폴리머의 대폭적인 케파증설을 결정하여 향후 폴리머 오더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점, 2) 특히 2013년에 삼성전자 태블릿PC의 출하대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여 동사의 삼성전자향 폴리머 납품 대수가 대폭 증가하는 점, 3) 현재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 운용전략을 수립한 점, 4) 자동차용 2차전지의 매출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 등이다.

■ Negatives : 아이패드미니에 공급하지 못하지만 다른 태블릿PC향이 이를 상쇄할 전망

삼성SDI에 부정적 요인들은 1) 원/엔의 하락으로 2차전지의 일본 경쟁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점, 2) 자동차용 2차전지가 초기 개발비용의 영향으로 당분간 분기당 4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점, 3) 아이폰5에 이어 아이패드미니로 폴리머를 공급하지 못하는 점 등이다. 하지만 삼성SDI는 해외생산 비중을 상승시키고 있어 원화강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어 전망이고, 2분기부터 자동차용 2차전지의 납품이 개시되어 기대가 실적으로 바뀔 전망이며, 성장이 가파른 다른 태블릿PC들에게 동사의 폴리머가 대부분 공급되고 있어 동사의 폴리머 성장스토리는 여전히 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사가 폴리머에서 점유율 1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애플의 신제품에는 동사의 폴리머가 다시 장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결론 : 우려들은 이미 반영, 호재들이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level-up될 전망

삼성SDI에 대한 적정주가를 19만원으로 유지하며 투자이건 Buy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부진, 원/엔 하락, 아이폰5와 아이패드미니에 동사 폴리머가 장착되지 못하는 등의 여러 우려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장기적 시각에서 동사에 대한 호재들이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level-up될 전망이다. 특히 적극적인 투자와 고객 확보를 통해 동사의 2차전지에서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점이 점차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십억원, %, %p)

	4Q12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49	1,414	(8.7)	1,514	(5.9)	(1.6)	6,007	6,067
영업이익	97	1	(99.3)	89	(99.2)	(93.7)	244	275
영업이익률(%)	6.3	0.0	6.2	5.9	(99.1)	(93.6)	4.1	4.5
세전이익	224	56	(74.9)	NM	NM	(43.8)	688	NM
순이익	210	56	(73.4)	615	NM	1.5	550	588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화학(051910)

매수(유지)
목표가: 350,000원(유지)
종가(1/29): 313,000원

석유화학 실적은 단기 부진일 뿐

■ What's new: 4분기 전 사업부문에서 예상 이하의 실적 달성

LG화학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 6,808억원, 3,639억원으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 대비 18%, 컨센서스보다 20%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중 견조한 영업이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연간 합계로는 업종 내에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전방산업의 재고조정으로 수요가 부진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8% 감소했다. 그러나 납사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매출액의 감소만큼 영업이익도 줄었다. 정보전자소재와 전지 사업은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전지 부문은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판매 부진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해 적자를 기록했다.

■ Positives: 석유화학 부문 실적은 1분기에 다시 개선된다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추이로 볼 때 석유화학 부문의 1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다. 석유화학 부문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945억원(+38% QoQ)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부터 화학제품 가격은 반등하기 시작해 1월 현재 스프레드는 4분기에 감소한 것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상대적으로 마진의 크기가 작은 범용 제품의 개선 폭이 크다.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의 평균 스프레드는 지난 4분기 37% 축소되었으나, 1월 현재는 그보다 64% 확대되었다. ABS와 합성고무의 원료가 되는 벤젠과 부타디엔 등 일부 중간원료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직계열화 된 생산구조로 인해 원가 부담이 타사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신규사업의 수익성 개선은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

2012년 한 해 동안 정보전자소재 매출이 1,083억원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613억원 증가했다. 수익성이 높은 3D FPR 매출 확대가 이를 견인했고, 전체 영업이익 비중도 2011년 13%에서 23%로 확대됐다. 2013년에도 ITO필름과 LCD용 유리기관 등 신규제품의 매출이 발생하여 두 개의 아이템만으로도 3천억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유리기관과 같이 장기적 투자계획을 가진 제품은 출시 초기의 수익성이 낮다. 2013년 정보전자소재 매출은 전년대비 4,832억원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의 증가는 13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올해는 석유화학 사업 실적 개선, 내년 이후에는 신사업의 성장에 기대

LG화학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5만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사업부문별 12개월 예상 EBITDA에 평균 7.7배의 멀티플을 적용한 SoTP 방식으로 산정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과 업황 회복 속도에 따른 모멘텀은 모두 화학 사업에서 기대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 실적 전망에 근거한 주가 상승여력은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정보전자소재와 전지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보유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위: 십억원, %, %p)

	4Q12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701.7	5,680.8	(0.4)	5,807.2	(2.6)	1.5	24,591.1	24,912.4
영업이익	445.4	363.9	(18.3)	452.2	(39.4)	(28.4)	2,226.7	2,471.7
영업이익률(%)	7.8	6.4		7.8			9.1	9.9
세전이익	462.6	375.1	(18.9)	454.6	(35.9)	(25.3)	2,175.5	2,428.2
순이익	312.8	292.3	(6.5)	347.3	(36.4)	(22.5)	1,663.1	1,879.5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에스원(012750)

매수(유지)

목표가: 80,000원(유지)

종가(1/29): 67,800원

불황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 What's new: 2013년에는 해외 성과로 두자리수 성장 목표

2012년 별도기준 매출액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연결 기준 매출액도 전년대비 6.9% 증가해 1조 96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 목표는 매출액과 세전이익을 모두 두자리수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시스템경비 부문에서는 영상 및 센서 신규 시장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 8~10% 성장하고, 보안 상품 판매를 중동 등 해외 사업과 해외 선진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솔루션 확보를 통해 20% 이상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우리의 2013년 매출액과 세전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8.4%와 8.9%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과 같은 1,250원으로 우리 예상치 1,300원보다 적었으나 2012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19.1%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주주이익환원정책을 높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 Positives: 시스템 경비 가입자 증가와 시큐아이닷컴 실적 호조

2012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039억원으로 우리 추정치를 5.9% 상회했다. 가입자 증가로 시스템경비 매출액이 늘었고, 보안 상품 판매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4분기 시스템경비 순증 가입자는 8,088건으로 전분기대비 32%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해 양호한 추세를 이어갔다. 2012년말 시스템경비 가입자는 456,642건으로 전년말대비 10.1% 증가했다. 시큐아이닷컴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41억원, 19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 1% 증가했다. 당초 목표했던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국내 통신 시장과 일본 등 해외에서의 성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 Negatives: 더딘 수익성 개선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18억원으로 우리 추정치를 18.5% 하회했다. 공격적인 영업에 따른 공사비 등 초기 영업비용 증가, 수익성이 낮은 보안상품 판매 매출 비중 상승, 인원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10.5%로 전분기대비 0.2%p 개선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 결론: 양호한 외형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 '매수' 유지

에스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12개월 목표주가 8만원(DCF Valuation)을 유지한다. 근거는 다음 세가지다. 1) 에스원의 적극적인 영업과 시장 성장으로 시스템 경비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상품 판매가 증가해 외형 성장세가 양호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2) 가입자 유치에 따른 초기 영업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신규 및 해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익성도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배당 증가 등 주주이익환원정책을 높게 유지할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2P			컨센서스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87	304	5.9	288	11.8	13.5	1,189	1,192
영업이익	39	32	(18.5)	36	14.1	(28.5)	148	172
영업이익률(%)	13.6	10.5	-	12.7	-	-	12.4	14.4
세전이익	42	33	(20.9)	40	9.2	(27.5)	155	185
순이익	31	24	(22.0)	28	3.6	(30.6)	119	129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스카이라이프(053210)

매수(유지)

목표가: 40,000원(유지)

종가 (1/29): 31,600원

성장성과 수익성 동반 개선 추세는 13년에도 지속될 전망

■ What's new: 12년 분기 사상 최대 순증 가입자, 실적 개선 지속

KT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의 4분기 매출액은 1,60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9% 증가했다. 17만명의 가입자 순증을 바탕으로 수신료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이 124.5% 증가했기 때문이다. KBS 공시청 설비 공사 관련 매출 95억원이 반영되며 기타 매출이 88.7% 늘어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영업이익은 1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3% 증가했다. 마케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 기여도가 높은 홈쇼핑송출수수료 수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 Positives: 12년보다 많은 순증 가입자 예상, 플랫폼 매출 전망 밝아

스카이라이프의 12년 순증 가입자는 53만명이었고 13년 순증 가입자 가이드선으로 55만명을 제시했다. 우리는 13년 순증 가입자수로 회사 가이드선인 4만명 많은 59만명으로 추정한다. 1)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2) KT 그룹의 결합상품 OTS 중심의 가입자 모집이 강화되며, 3) KBS 공시청 설비 구축(13년 내 완료 예정) 이후의 IF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4) DCS의 우회 기술을 통해 음영지역 가입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13년 플랫폼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홈쇼핑수수료가 전년 대비 69% 늘어나고, KT IPTV와의 통합 광고 영업을 통해 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판매돼 광고수익이 72% 증가할 전망이다.

■ Negatives: 가입자당 매출액 감소, 콘텐츠 비용 증가는 큰 우려 아님

12년 4분기 평균 가입자당 방송서비스 매출액(ARPU)은 8,537원으로 3분기 8,676원 대비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ARPU가 낮은 OTS 가입자 비중이 4분기에 46.8%(3분기 44.1%)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3년 중에 VoD 서비스 출시를 통해 향후 점진적 ARPU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콘텐츠 비용이 전년동기 대비 46.7% 증가했지만 이와 연동되는 채널 임대 수익도 74.3%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13년 콘텐츠 비용은 전년 대비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입자 성장 + 플랫폼 매출액 증가, 수익성 개선 지속

가입자 증가를 기반으로 플랫폼 매출액이 동시에 급증하고 ARPU가 증가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13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3.8%, 79.6%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도 12년 12.2%에서 17.7%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0,000원(DCF valuation - 영구 성장률 1.5%, WACC 9.9%, 베타 1.2 가정)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4Q12P			컨센서스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49.9	160.9	7.4	148.5	16.6	34.9	682.6	647.5
영업이익	16.2	15.8	(2.6)	17.1	(4.4)	59.3	121.1	126.9
영업이익률(%)	10.8	9.8		11.5			17.7	19.6
세전이익	16.0	15.0	(6.8)		(29.7)	83.4	126.7	
순이익	13.1	11.8	(9.7)	14.2	(29.6)	85.7	97.5	101.8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제일기획(030000)

매수(유지)
목표가: 26,500원(유지)
종가 (1/29): 22,500원

13년에도 해외 모멘텀이 부각될 전망

■ What's new: 전분기에 이어 해외 성장, 국내 부진

제일기획의 4분기 매출총이익은 1,86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8% 늘었다. 국내 매출총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1% 감소했지만 해외 매출총이익이 46.9% 늘었기 때문이다. 해외 매출총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1) 핵심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이 증가됐고, 2) 국내외 비계열 광고주 신규 개발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12년 7월에 인수한 맥키니(미국)의 매출총이익이 3분기를 상회하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 해외 인력 충원이 지속되면서 판관비가 31.9% 증가했지만 해외 매출총이익 증가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한 457억원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386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 Positives: 해외 부문의 꾸준한 실적 개선

제일기획 실적 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외 부문의 모멘텀이다. 1) 삼성전자의 핵심 제품에 대한 글로벌 광고 집행이 늘어나고, 2) 중동,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삼성전자 리테일 마케팅이 확대되고, 3) 맥키니, 브라보와 같은 해외 광고업체를 인수하면서 광고 취급고가 늘어나 해외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 능력을 갖춘 맥키니, 브라보와 같은 업체 인수 후에 삼성전자 광고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 매출총이익은 12년에 전년 대비 44% 증가한데 이어 13년에도 2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Negatives: 국내 광고 경기 부진, 인건비 부담

12년 4분기 국내 광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제일기획의 4대매체, 케이블&인터넷 부문의 매출총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 11% 감소했다. 국내 광고 경기는 12년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하반기에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분기에도 해외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이 지속돼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7.3% 대비 하락한 6.3%를 기록했다. 13년에도 인력 충원이 있겠지만 12년보다 규모가 줄어 13년 영업이익률은 12년 대비 0.1%p 개선될 전망이다.

■ 해외 모멘텀 지속, 자사주 매입이 주가 하방 경직성 높일 전망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강화, 인수한 해외 자회사와의 시너지 확대(해외 삼성전자 광고 물량 확대), 판관비 증가율 둔화로 1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제일기획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6,5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22.5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또한 제일기획은 12년 두 차례 자사주 매입을 한데 이어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460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광고 경기 부진에도 주가 하방 경직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2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647.7	721.4	11.4	646.9	18.8	26.3	2,814.6	2,558.9
영업이익	38.6	45.7	18.5	38.6	59.2	10.1	152.8	143.5
영업이익률(%)	6.0	6.3		6.0			5.4	5.6
세전이익	45.3	47.3	4.3		46.2	1.9	167.7	
순이익	33.1	32.1	(3.0)	34.5	52.1	(7.5)	119.8	120.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POSCO(005490)

매수(유지)

목표가: 420,000원(유지)

종가(1/29): 355,500원

예상된 부진

■ What's new : 별도기준 영업이익 3,788억원, 컨센서스 18.8% 하회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3,788억원(QoQ -54.8%, YoY -50.9%)으로 컨센서스 4,668억원을 18.8% 하회했다(기타영업손익을 영업이익에서 제외한 변경된 회계 기준). 우리 추정치인 3,980억원(회계 기준 변경 전 3,860억원)에는 4.9% 못 미쳤다. 탄소강 평균 단가가 80.9만원으로 우리 추정치 82.4만원보다 3.9% 낮았고, 출하량도 867.4만톤으로 우리 추정치 876.8만톤을 1.1% 하회했다.

■ Positives : 1분기 영업이익은 68.3% 증가, 그러나...

우리는 1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6,37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8.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톤당 원가는 3.5만원 하락이 예상되나 제품 평균 가격은 0.5만원 하락에 그치면서 톤당 영업이익이 3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톤당 영업이익이 4분기 4.4만원에서 1분기에는 7.3만원으로 67.8% 상승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 실적은 컨센서스 7,578억원을 15.9% 하회한다. 실적은 개선되나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 Negatives : 가격 인상 시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현재 고로사들은 판매류 가격을 톤당 2~3만원 인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품 가격이 실제로 그 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유는 1) 고객사들이 1분기에 톤당 원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2) 1분기는 비수기여서 수요가 강하지 않아 강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철강 가격 상승은 수요가 아닌 원재료 가격 상승에 원인이 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한국에서 중국 가격이 올랐으니 국내 가격도 올린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낮다. 철강업체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고 상승하더라도 일부에 그칠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시장 예상보다 낮게 보는 이유다.

■ 결론 : 조정 후 재매수 관점 유지

우리는 4분기 실적 부진과 시장 예상보다 낮은 1분기 실적, 그리고 과거대비 강하지 않은 준절 효과 등을 이유로 POSCO 주가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조정 후 재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POSCO 주가의 저점을 KOSPI PBR과의 상대 PBR을 통해 31.7만원(PBR 0.61배, 역사적 KOSPI PBR대비 POSCO PBR 최대 할인률 48%를 적용해 산출)로 보고 있다. 철강 가격의 인상 여부와 폭을 확인해야 할 시기이다. 한편, 출하량과 제품 가격 전망을 하향해 2013년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5.8%, 연결 순이익은 3.8% 하향했다.

(단위: 십억원, %, %p)

	4Q12P			컨센서스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798	15,068	(4.6%)	16,543	(4.3%)	(19.4%)	61,172	65,130
영업이익	600	581	(3.2%)	702	(43.0%)	(40.0%)	3,914	4,098
영업이익률(%)	3.8	3.9	0.1%p	4.2	(2.6%p)	(1.3%p)	6.4	6.3
세전이익	1,352	615	(54.5%)		(44.8%)	150.1%	4,547	
순이익	1,082	509	(52.9%)	682	(31.8%)	(50.1%)	3,410	3,341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23(수)	01/24(목)	01/25(금)	01/28(월)	01/29(화)	01/30(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80.41	1,964.48	1,946.69	1,939.71	1,955.96	1,964.43	
	등락폭	-16.11	-15.93	-17.79	-6.98	16.25	8.47	
	등락종목	상승(상한)	300(5)	290(6)	309(5)	390(3)	442(4)	426(9)
		하락(하한)	514(3)	521(1)	499(2)	442(3)	351(0)	370(1)
	ADR	103.86	100.85	97.38	97.36	96.47	93.95	
	이격도	10 일	99.53	98.94	98.29	98.27	99.24	99.73
		20 일	99.24	98.49	97.68	97.45	98.37	98.96
	투자심리	40	30	30	20	30	40	
	거래량 (백만 주)	486	551	396	344	459	516	
거래대금 (십억 원)	4,125	4,449	4,956	4,529	4,538	4,207		
코스닥	코스닥지수	513.26	508.63	506.83	504.20	505.35	502.80	
	등락폭	-3.33	-4.63	-1.80	-2.63	1.15	-2.55	
	등락종목	상승(상한)	359(14)	290(8)	338(6)	412(11)	472(6)	348(6)
		하락(하한)	569(1)	634(0)	602(3)	523(5)	448(3)	571(0)
	ADR	112.85	106.45	102.87	99.37	96.45	90.56	
	이격도	10 일	100.20	99.41	99.23	98.89	99.17	98.76
		20 일	101.51	100.35	99.76	99.12	99.26	98.75
	투자심리	50	4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548	540	544	463	550	462	
거래대금 (십억 원)	2,023	1,886	1,830	1,507	1,639	1,759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10.0	1,206.1	1,081.1	201.3	121.1	257.4	57.4	18.6	392.6	35.3
	매도	1,975.5	1,300.6	915.6	202.6	106.0	268.0	33.9	16.1	243.7	40.9
	순매수	-65.5	-94.5	165.5	-1.3	15.1	-10.6	23.4	2.5	148.8	-5.5
	01 월 누계	1,126.1	-1,811.8	832.2	91.5	347.2	-309.0	-57.2	-4.9	761.6	-146.4
	13 년 누계	1,126.1	-1,811.8	832.2	91.5	347.2	-309.0	-57.2	-4.9	761.6	-146.4
코스닥	매수	1,627.2	69.7	74.3	9.9	9.6	17.5	10.0	2.3	22.9	12.1
	매도	1,598.5	80.4	85.6	14.5	9.2	22.0	5.8	6.8	23.4	18.8
	순매수	28.7	-10.7	-11.3	-4.6	0.4	-4.5	4.2	-4.6	-0.5	-6.7
	01 월 누계	-33.6	7.4	78.2	12.0	-12.5	93.0	5.2	-25.0	17.2	-52.0
	13 년 누계	-33.6	7.4	78.2	12.0	-12.5	93.0	5.2	-25.0	17.2	-52.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16,630	화학	-22,560
기계	5,655	전기,전자	-6,873
운수장비	3,944	금융업	-6,290
삼성물산	11,708	삼성전자	-18,086
LG디스플레이	7,108	LG화학	-15,827
두산중공업	5,684	NHN	-6,174
SK하이닉스	5,244	고려아연	-5,827
SK이노베이션	5,205	KODEX 200	-4,15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1,442	제조업	-686
화학	15,719	섬유,의복	-79
운수장비	14,189	비금속광물	262
삼성전자	23,831	SK하이닉스	-13,788
POSCO	14,230	현대차	-11,486
대우조선해양	11,390	고려아연	-4,930
우리금융	10,535	삼성전기	-4,139
GS	8,202	현대제철	-3,59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121	전기,전자	-2,341
운수장비	1,939	서비스업	-922
통신업	1,231	유통업	-613
TIGER 200	1,550	삼성전자	-3,205
현대중공업	1,264	현대백화점	-1,212
LG화학	903	LG디스플레이	-706
삼성전기	643	금호석유	-534
SK텔레콤	637	KODEX 삼성그룹	-38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1,199	서비스업	-6,418
보험	5,519	통신업	-4,572
기계	3,328	증권	-3,066
LG생활건강	5,314	현대백화점	-6,782
LG디스플레이	3,803	KT	-3,925
SK하이닉스	3,183	SK	-3,261
삼성전자	3,116	현대위아	-2,451
KODEX 200	3,075	삼성증권	-2,341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9,864	전기,전자	-24,891
서비스업	33,013	섬유,의복	-7,201
유통업	27,351	음식료품	-3,607
KODEX 200	48,011	삼성전자	-24,527
삼성물산	24,252	고려아연	-14,287
POSCO	22,073	LG화학	-12,964
KODEX 레버리지	17,627	현대백화점	-10,172
대우조선해양	16,139	현대위아	-9,386
삼성중공업	15,915	SK하이닉스	-8,375
LG디스플레이	15,896	LG패션	-7,545
대림산업	15,833	KODEX 인버스	-4,924
기아차	15,157	삼성전기	-4,553
GS	12,055	오리온	-3,91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00,104	운수장비	-95,533
서비스업	12,542	화학	-48,151
유통업	5,867	철강및금속	-21,695
삼성전자	108,244	KODEX 200	-53,646
현대백화점	8,992	기아차	-35,264
NHN	7,981	LG화학	-34,080
호텔신라	7,569	현대차	-26,278
CJ	6,566	POSCO	-22,924
현대건설	6,011	현대중공업	-15,173
삼성전자우	5,705	LG디스플레이	-14,134
SK이노베이션	4,886	한국전력	-11,280
SK하이닉스	4,287	대림산업	-9,711
LG생활건강	4,174	대우조선해양	-8,53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장비	1,445	디지털컨텐츠	-2,776
음식료,담배	949	IT부품	-2,088
사업지원	850	방송서비스	-807
알에프텍	1,298	네오위즈게임즈	-1,206
한글과컴퓨터	1,106	이녹스	-1,128
하림	972	YTN	-1,004
성우하이텍	828	조이맥스	-743
하나투어	665	솔브레인	-643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1,933	제약	-1,949
IT부품	1,179	반도체	-969
인터넷	1,155	기계,장비	-888
파트론	1,470	웰크론한텍	-1,881
다음	1,155	CJ E&M	-1,166
포스코엠텍	1,111	셀트리온	-1,153
파라다이스	974	코오롱생명과학	-858
이녹스	897	에스맥	-85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54	반도체	-407
IT부품	154	디지털컨텐츠	-261
소프트웨어	96	의료,정밀기기	-107
한국사이버결제	198	서울반도체	-474
씨젠	121	한글과컴퓨터	-179
덕산하이메탈	113	게임빌	-127
아트라스BX	102	다음	-122
MDS테크	98	코나아이	-100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408	소프트웨어	-937
출판,매체복제	840	반도체	-364
인터넷	355	기계,장비	-359
CJ오쇼핑	1,415	한글과컴퓨터	-980
로엔	958	웰크론한텍	-653
옵트론텍	483	플렉스컴	-359
비에이치	412	서울반도체	-337
OCI머티리얼즈	356	SK브로드밴드	-32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2,996	반도체	-4,367
사업지원	2,785	제약	-2,477
통신장비	1,508	디지털컨텐츠	-2,191
포스코엠텍	2,629	웰크론한텍	-2,769
하나투어	2,245	CJ E&M	-2,386
알에프텍	1,736	서울반도체	-2,126
다음	1,373	셀트리온	-1,454
인터파크	1,128	코오롱생명과학	-1,435
성우하이텍	1,128	네오위즈게임즈	-1,231
하림	1,063	YTN	-1,047
성광벤드	938	위메이드	-992
CJ오쇼핑	923	솔브레인	-921
컴투스	789	에스맥	-874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3,053	반도체	-5,157
전문기술	1,929	금속	-2,773
사업지원	1,506	통신장비	-2,596
게임빌	3,454	컴투스	-4,644
오스템임플란트	3,016	홈캐스트	-1,457
CJ E&M	2,405	서울반도체	-1,283
셀트리온	1,587	에이블씨엔씨	-1,220
하나투어	1,479	다음	-1,177
파라다이스	1,086	태웅	-1,142
성우하이텍	966	심텍	-1,081
한글과컴퓨터	923	에스엠	-996
씨젠	739	메디포스트	-932
플렉스컴	681	코미팜	-92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인	인	인
TIGER	원유선물(H)	29 일	한국셀석유 21 일
삼성생명		20 일	현대백화점 20 일
LG디스플레이		16 일	롯데제과 12 일
강원랜드		15 일	KB금융 11 일
우리금융		14 일	락앤락 8 일
아세아시멘트		13 일	빙그레 6 일
쌍용양회		13 일	LS 6 일
태광산업		12 일	오뚜기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인	인	인
이트레이드증권		30 일	동서 12 일
성우하이텍		7 일	오성엘에스티 6 일
평화정공		7 일	하이록코리아 4 일
서부T&D		5 일	아트라스BX 4 일
원익IPS		4 일	큐렉소 4 일
다음		4 일	엘앤에프 4 일
주성엔지니어링		4 일	셀트리온 4 일
하나투어		4 일	미래나노텍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인	인	인
삼성전자	133,055	하나금융지주	80,294
현대차	122,061	현대백화점	41,358
KODEX 200	119,719	호텔신라	39,135
삼성물산	101,920	KB금융	30,384
KODEX 인버스	93,631	삼성전자우	26,195
POSCO	83,724	고려아연	22,512
LG디스플레이	63,838	SK이노베이션	21,467
롯데케미칼	55,191	현대건설	14,492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인	인	인
CJ E&M	18,634	오스탬임플란트	10,606
파라다이스	9,642	게임빌	8,238
성우하이텍	8,226	셀트리온	5,526
하나투어	6,104	하나투어	4,436
웹젠	4,397	파트론	3,936
네패스	4,047	CJ E&M	3,501
네오위즈인터넷	3,205	덕산하이메탈	2,847
인터파크	2,939	동서	2,52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인	
합	계			
서비스업		33,013	12,542	45,554
유통업		27,351	5,867	33,219
-		-	-	-
KODEX 레버리지		17,627	3,656	21,283
호텔신라		2,970	7,569	10,539
SK		7,544	1,950	9,494
SK이노베이션		1,531	4,886	6,417
LG생활건강		908	4,174	5,082
삼성엔지니어링		3,472	1,415	4,887
S-Oil		3,268	1,319	4,587
세아베스틸		2,643	1,689	4,332
제일기획		2,917	559	3,476
LG생명과학		1,028	1,999	3,02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인	
합	계			
사업지원		2,785	1,506	4,291
운송장비,부품		1,240	642	1,882
오락,문화		163	1,258	1,422
하나투어		2,245	1,479	3,725
성우하이텍		1,128	966	2,094
파라다이스		14	1,086	1,100
플렉스컴		362	681	1,043
이엘케이		573	23	596
파트론		131	423	555
메가스터디		39	485	524
인피니트헬스케어		47	454	500
에스텍파마		236	260	496
OCI머티리얼즈		343	107	45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200	21 일	삼성테크윈	18 일	씨엔케이인터	33 일	SBS콘텐츠허브	12 일
현대백화점	19 일	한일시멘트	17 일	네오위즈게임즈	18 일	성광벤드	7 일
KODEX 철강	15 일	동아타이어	16 일	이엘케이	9 일	포스코엠텍	6 일
TIGER 생활소비재	15 일	대한제분	15 일	심텍	8 일	젬백스	5 일
TIGER 경기방어	12 일	대상	15 일	비에이치아이	6 일	크루셜텍	5 일
SKC	9 일	넥센타이어	15 일	동국산업	5 일	심텍	4 일
하나금융지주	8 일	동국제강	12 일	인터플렉스	5 일	평화정공	4 일
TREX 중소형가치	8 일	쌍용양회	12 일	하이룩코리아	3 일	서울반도체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251,480	삼성전자	-483,448	인터플렉스	-15,872	컴투스	-7,604
하나금융지주	-74,209	현대차	-250,459	우전앤한단	-8,941	성광벤드	-3,866
현대위아	-56,806	KODEX 200	-164,885	웰크론한택	-6,027	에스엠	-3,350
현대중공업	-54,143	기아차	-127,116	네오위즈게임즈	-4,903	심텍	-3,214
고려아연	-44,864	LG디스플레이	-67,927	위메이드	-4,770	코미팜	-2,467
현대백화점	-40,387	SK하이닉스	-67,919	심텍	-3,997	네오위즈게임즈	-2,277
삼성전자우	-25,278	POSCO	-63,773	멜파스	-3,499	홈캐스트	-2,248
LG전자	-24,819	LG화학	-61,203	포스코엠텍	-2,996	포스코엠텍	-2,14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382	-48,151	-48,533	반도체	-4,367	-5,157	-9,524
섬유,의복	-7,201	-780	-7,981	디지털컨텐츠	-2,191	-1,249	-3,440
음식료품	-3,607	-569	-4,176	화학	-496	-2,075	-2,570
LG화학	-12,964	-34,080	-47,044	서울반도체	-2,126	-1,283	-3,409
하나금융지주	-1,882	-5,400	-7,282	심텍	-585	-1,081	-1,666
KODEX 인버스	-4,924	-1,255	-6,178	홈캐스트	0	-1,457	-1,457
현대하이스코	-2,823	-1,300	-4,122	위메이드	-992	-234	-1,226
제일모직	-1,326	-2,180	-3,506	태웅	-74	-1,142	-1,216
STX팬오션	-1,459	-1,687	-3,147	솔브레인	-921	-283	-1,204
에스원	-698	-1,933	-2,631	에스맥	-874	-287	-1,161
넥센타이어	-556	-2,074	-2,630	YTN	-1,047	-47	-1,094
한솔테크닉스	-2,489	-120	-2,608	에스엠	-45	-996	-1,041
현대미포조선	-2,053	-409	-2,462	태광	-610	-412	-1,02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OCI	105	17,663
삼성전자	9	12,732
LG전자	118	8,706
기아차	166	8,483
POSCO	18	6,275
호텔신라	123	5,521
롯데하이마트	55	3,927
KODEX 200	147	3,813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파라다이스	61	1,093
파트론	33	702
루멘스	69	584
다음	3	352
게임빌	4	331
비츠로시스	99	303
서울반도체	11	297
컴투스	8	29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329	6,099,767
POSCO	8,732	3,104,140
LG전자	37,618	2,764,892
OCI	9,416	1,591,280
현대차	4,241	875,763
NHN	3,491	846,540
SK하이닉스	23,409	566,487
현대모비스	2,042	556,436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5,986	665,242
서울반도체	6,028	169,380
에스엠	2,039	80,115
덕산하이메탈	3,092	69,876
파라다이스	3,030	55,141
다음	494	51,246
차바이오앤	4,418	41,970
에이블씨앤씨	494	37,66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유통업	3,186	통신업	-577
화학	2,621	운수창고	-394
전기,전자	1,759	기계	-238
LG디스플레이	1,831	LG전자	-2,082
우리금융	1,794	하나금융지주	-1,514
KODEX 200	1,264	한진중공업	-857
SK하이닉스	1,161	한진해운	-796
외환은행	1,135	대한전선	-787
SK네트웍스	1,075	두산인프라코어	-761
넥센타이어	861	LG유플러스	-455
페이퍼코리아	750	금호타이어	-345
웅진에너지	741	STX조선해양	-339
SG세계물산	725	대한항공	-311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1,065	환경	-151
소프트웨어	857	컴퓨터서비스	-107
오락,문화	738	의료,정밀기기	-63
파라다이스	704	옵트론텍	-378
KG이니시스	264	셀트리온	-356
파트론	255	코엔텍	-214
시노펙스	237	네오위즈	-154
인터파크	226	AJS	-145
원익IPS	203	포스코 ICT	-138
안국약품	200	오스템임플란트	-96
티케이케미칼	193	STS반도체	-95
SM C&C	191	서울반도체	-93
SK브로드밴드	178	네오위즈게임즈	-6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24(목)	01/25(금)	01/28(월)	01/29(화)	01/30(수)
외국인	-1,811.8	-1,811.8	-1,299.3	-193.6	-514.7	-490.1	-32.2	-94.5
기관계	832.2	832.2	967.2	37.4	154.5	415.8	216.5	165.5
(투신)	-309.0	-309.0	190.1	-25.3	53.1	115.5	64.4	-10.6
(연기금)	793.1	793.1	306.5	16.5	1.0	109.9	41.0	149.8
(은행)	-4.9	-4.9	1.8	7.1	-26.6	14.0	4.7	2.5
(보험)	347.2	347.2	151.5	4.6	20.8	9.8	105.2	15.1
개인	1,126.1	1,126.1	351.7	172.0	351.7	71.2	-176.7	-65.5
기타	-146.4	-146.4	-19.7	-15.9	8.5	3.0	-7.7	-5.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1/23(수)	01/24(목)	01/25(금)	01/28(월)	01/29(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80.41	1,964.48	1,946.69	1,939.71	1,955.96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337.2	17253.5	17298.8	17585.7	17834.3
(증감액)	2735.7	1996.5	3611.7	-99.5	-83.7	45.3	286.9	248.6
(회전율)	52.6	51.5	34.2	36.3	37.5	39.9	35.2	35.8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96.6	-113.0	175.0	449.9	553.9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127.0	4151.2	4150.5	4147.8	4181.8
미수금	240.2	192.3	187.7	116.3	115.8	130.9	137.7	149.0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1/23(수)	01/24(목)	01/25(금)	01/28(월)	01/29(화)
전체 주식형	94,287	9	9	111	-21	33	70	730
(ex. ETF)		-825	-825	-71	-34	34	130	42
국내 주식형	68,664	393	393	130	5	36	89	743
(ex. ETF)		-447	-447	-51	-9	35	149	54
해외 주식형	25,623	-385	-385	-19	-25	-2	-19	-13
(ex. ETF)		-378	-378	-19	-25	-2	-19	-12
주식 혼합형	9,913	-72	-72	-2	-9	-4	27	60
채권 혼합형	19,381	170	170	32	-9	-12	7	45
채권형	47,772	492	492	141	-152	135	12	125
MMF	77,992	14,847	14,847	894	-323	-887	2	11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24(목)	01/25(금)	01/28(월)	01/29(화)	01/30(수)
한 국	-1,675	-1,675	-68	-181	-453	-449	-30	-79
대 만	367	367	1,123	-296	-80	126	258	273
인 도	3,480	3,480	841	315	-	150	-	-
인도네시아	498	498	376	-	85	-7	20	-
태국	488	488	278	2	52	-26	1	-
남아공	-70	-70	249	47	10	56	68	-
필리핀	620	620	69	4	-3	18	32	18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1/23(수)	01/24(목)	01/25(금)	01/28(월)	01/29(화)	01/30(수)
회사채 (AA-)	3.29	3.15	3.13	3.12	3.13	3.13	3.15
회사채 (BBB-)	8.80	8.70	8.69	8.69	8.70	8.70	8.73
국고채 (3년)	2.82	2.72	2.71	2.71	2.74	2.75	2.78
국고채 (5년)	2.97	2.83	2.82	2.82	2.85	2.86	2.90
국고채 (10년)	3.16	3.01	3.00	2.99	3.03	3.04	3.10
미 국채 (10년)	1.76	1.82	1.85	1.84	1.96	2.00	-
일 국채 (10년)	0.80	0.74	0.73	0.73	0.75	0.77	-
원/달러	1,070.60	1,066.20	1,068.70	1,074.50	1,093.50	1,082.50	1,085.40
원/엔	1,243.73	1,210.00	1,196.00	1,184.00	1,205.00	1,193.00	1,194.00
엔/달러	86.08	88.14	89.35	90.80	90.78	90.77	90.92
달러/유로	1.32	1.32	1.33	1.34	1.34	1.34	1.34
DDR3 1Gb (1333MHz)	0.67	0.68	0.68	0.68	0.68	0.68	-
NAND Flash 16Gb (MLC)	1.89	1.95	1.94	1.93	1.96	1.94	-
CRB 지수	295.01	300.60	300.42	300.40	300.19	301.83	-
LME 지수	3,454.5	3,518.4	3,516.7	3,484.1	3,494.9	3,519.4	-
BDI	699	817	808	798	792	779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6.24	95.95	95.93	96.44	97.57	-
금 (달러/온스)	1,663.40	1,686.40	1,669.90	1,656.60	1,652.90	1,660.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03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증감
1월 24일	258.74	259.65	0.99	0.91	1.02	212,828	110,846	2,252
1월 25일	256.06	256.40	0.96	0.34	1.12	201,864	112,787	1,941
1월 28일	254.66	256.20	0.89	1.54	1.14	181,492	111,913	-874
1월 29일	257.22	257.90	0.88	0.68	0.96	145,728	111,910	-3
1월 30일	258.47	259.10	0.88	0.63	0.87	192,821	108,830	-3,080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기금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월 24일	-3,376	1,356	2,641	2,335	702	-155	-224	-4
1월 25일	-3,800	-740	4,879	3,014	2,275	-111	-368	0
1월 28일	-2,759	1,154	1,874	-436	2,586	-159	-339	8
1월 29일	4,514	-2,262	-2,469	-3,216	830	-2	-30	-9
1월 30일	3,368	-1,186	-2,416	-1,451	-817	-43	16	8
누적포지션	-19,455	14,071	6,850	3,494	4,320	231	-1,478	289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월 24일	813	834	21	677	825	148	136	9	-127	4,938	9,732
1월 25일	808	839	31	780	829	49	28	10	-18	4,938	9,710
1월 28일	803	717	-86	742	707	-35	61	10	-51	4,967	9,704
1월 29일	802	874	72	663	866	203	139	8	-131	5,065	9,704
1월 30일	862	843	-20	682	831	148	180	12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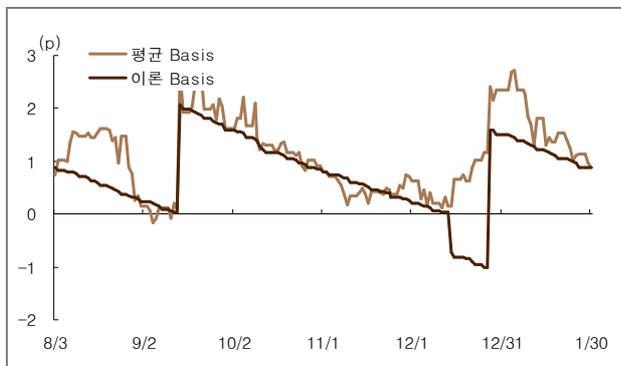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3.69	-1,133	155,917	0.20	270.00	11.80	114	31	17.99
	13.47	-1,215	128,859	0.39	267.50	9.25	159	10	14.74
	13.08	-263	212,180	0.70	265.00	7.10	1,308	-129	14.27
	13.17	-1,129	190,364	1.30	262.50	5.20	4,557	48	14.11
	13.23	-2,662	196,035	2.20	260.00	3.65	19,038	-158	14.29
	13.53	1,032	31,104	3.50	257.50	2.41	100,236	940	14.39
	13.63	29	11,316	5.10	255.00	1.54	162,674	982	14.74
	14.08	56	2,220	7.05	252.50	0.96	151,452	796	15.24
	13.99	-7	923	9.15	250.00	0.58	140,935	-410	15.75
	5.00	-70	124	11.10	247.50	0.36	92,558	4,742	16.49
	15.87	66	125	13.90	245.00	0.24	89,189	-1,219	1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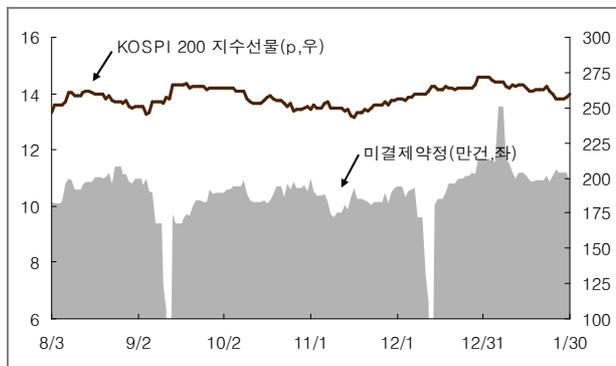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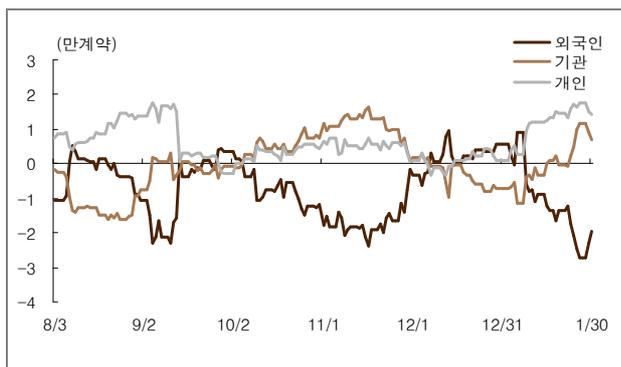
- 평균 Basis: 0.87 (전 거래일 대비 0.09 하락)
- 이론 Basis: 0.88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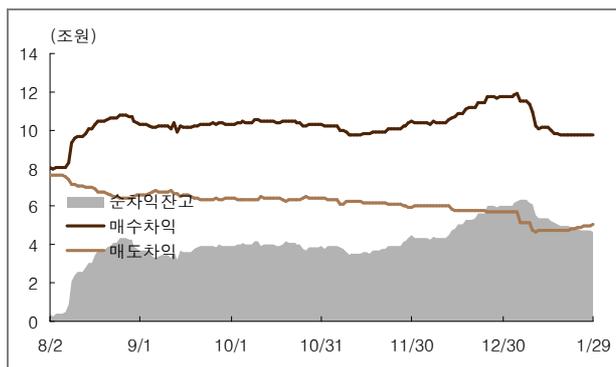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080 계약 감소한 108,830 계약
- 선물가격(259.10): 전 거래일 대비 1.20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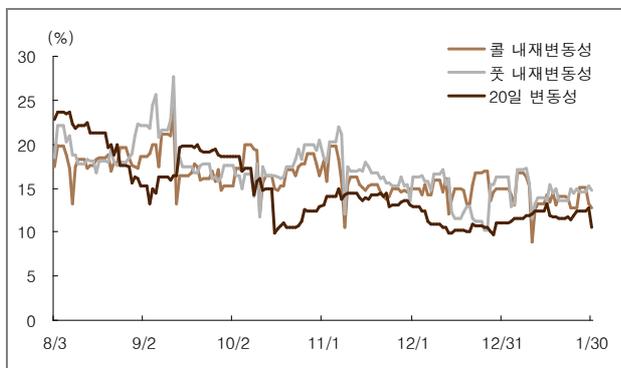
- 외국인: 3,368 계약 순매수
- 기관: 2,416 계약 순매도 / 개인: 1,186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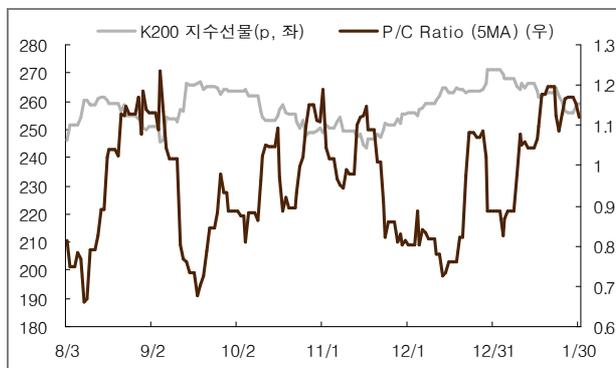
- 차익거래: 1,680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1,483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2.7% / 풋 14.7%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0.49%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12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1	22	23	24	25
유럽> (21-22)유로존/EU 재무장관회의 美> 12월 기준주택매매 MoM (-1.0%, 1.2%, 5.9%)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수령 日> BOJ 정책금리 (0.10%, 0.10%, 0.10%)	美> 12월 기준주택매매 MoM (-1.0%, 1.2%, 5.9%)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수령 日> BOJ 정책금리 (0.10%, 0.10%, 0.10%)	韓> 12월 할인점 매출 YoY (-5.0%, n/a, -1.7%) 12월 백화점 매출 YoY (-0.2%, n/a, 9.1%) 美> 주간 MBA 주택용자신청지수 (7.0%, n/a, 15.2%) 11월 주택가격지수 MoM (0.6%, 0.7%, 0.5%) 유럽>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잠정치) (-23.9, -26.0, -26.3)	韓> 4Q GDP QoQ (잠정치) (0.4%, 0.5%, 0.1%)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0만, 35.5만, 33.5만) 유럽> 1월 PMI 제조업 (잠정치) (47.5, 46.6, 46.1) 中> 1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51.9, 51.7, 51.5)	美> 12월 신규주택매매 MoM (-7.3%, 2.1%, 4.4%) 日> 12월 국내 CPI YoY (-0.1%, -0.2%, -0.2%) 유럽>
28	29	30	31	1
韓> 1월 소비자자기대지수 (102, n/a, 99) 美> 12월 내구재 주문 MoM (4.6%, 2.0%, 0.7%) 12월 미경주택매매 MoM (-4.3%, 0.1%, 1.7%) 中> 12월 선행지수 (미확정) (0.0%, n/a, 100.21) 실적발표> 韓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카드, 대림산업, 대상, 대우조선해양, 현대하이스코, 등양기전 美 캐터필러	韓> 2월 BSI 제조업 (72, n/a, 70) 2월 BSI 비제조업 (70, n/a, 68) 美> 11월 S&P/CS 주택가격지수 MoM (0.63%, 0.70%, 0.66%) 1월 소비자자기대지수 (58.6, 64.0, 65.1) 실적발표> 韓 포스코, LG화학, 에스원, 이마트, 신세계, 삼성SDI, 제일기획, 롯데칠성음료, KT스카이라이프, SK하이닉스 美 야후!, 코닝, 화이자, 포드	韓> 12월 경상수지 (\$2,253M, n/a, \$6,877.7M) 12월 산업생산 YoY (0.8%, 1.2%, 2.9%) 1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0.4, n/a, 0.3) 美> 주간 MBA 주택용자신청지수 (n/a, n/a, 7.0%) 1월 ADP 취업자 변동 (n/a, 16.5만, 21.5만) 4Q 연간화 GDP QoQ (잠정치) (n/a, 1.1%, 3.1%) FOMC 금리 결정 (n/a, 0.25%, 0.25%) 실적발표> 韓 LG전자,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삼성테크윈, 한진해운, 풍산, LG하우시스, 삼성전기, GS홈쇼핑 美 아마존닷컴*, 보잉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5.0만, 33.0만) 12월 개인소득 MoM (n/a, 0.8%, 0.6%) 12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3%, 0.4%) 日> 12월 산업생산 YoY (잠정치) (n/a, -5.6%, -5.5%) 12월 자동차생산 YoY (n/a, n/a, -8.4%) 실적발표> 韓 삼성화재, 현대제철, S-Oil, 서울반도체, 현대모비스 美 썬컴, 페이스북, 비아콤, 다우 케미컬, UPS, 마스터카드, 월플	韓>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5%, 1.4%) 1월 수출 YoY (n/a, 8.9%, -5.7%) 1월 수입 YoY (n/a, 1.4%, -5.2%) 1월 무역수지 (n/a, \$880M, \$1,923M) 美> 1월 비농가 고용자수 MoM (n/a, 16.1만, 15.5만) 1월 실업률 (n/a, 7.8%, 7.8%) 1월 ISM 제조업 (n/a, 50.5, 50.7) 12월 건설지출 MoM (n/a, 0.6%, -0.3%) 유럽> 12월 유로권 실업률 (n/a, 11.9%, 11.8%) 中> 1월 제조업 PMI (n/a, 51.0, 50.6) 1월 HSBC 제조업 PMI (n/a, 52.0, 51.5) 日> 12월 실업률 (n/a, 4.1%, 4.1%) 실적발표> 韓 만도, KT, SK,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넥센타이어 美 엑슨모빌, 세브론, 타이슨 푸드
4	5	6	7	8
美> (2/2) 1월 총 차량판매 유럽> 2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中> (2/3) 1월 PMI 비제조업 실적발표> 美 시스코, 가네트	美> 1월 ISM 비제조업 유럽> 12월 유로권 소매 판매 MoM 中> 1월 HSBC PMI 서비스 실적발표> 韓 SK텔레콤, 엔씨소프트, 美 엠!브랜즈*, 에스티로더	美> 주간 MBA 주택용자신청지수 실적발표> 韓 한화생명, DGB금융지주, OCI 美 월트디즈니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럽> ECB 금리 공시 (2/7-8) EU 정상회의 실적발표> 韓 NHN, 아시아나항공, 롯데쇼핑, 삼성생명, 한국가스공사, 신한/KB/우리/하나금융지주 美 비자*,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美> 12월 무역수지 中> 1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YoY 1월 수출/수입 YoY, 무역수지 (2/9-15) 준절 日> 12월 경상수지 YoY 실적발표> 美 무디스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